



# 안다아시아벤처스 월간뉴스(23.01)



## 1. 한국벤처투자주관, 모태펀드 전북·강원 지역혁신 분야 출자사업 지원

안다아시아벤처스는 2023년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, 한국벤처투자에서주관하는 **전북·강원지역혁신 분야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원**하였습니다.

전북·강원지역혁신 분야에 지원한 **6개 운용사 중 2개 운용사 선정** 계획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.

하지만 당사는 [스마트안다-오택캐리어그린뉴딜펀드]라는 국내 정책펀드 자조합 운용 경험과 펀드결성 역량, 전문인력들의 투자 전문성 등, 안다아시아벤처스의 경쟁우위 요소를 토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.

향후 일정으로는 1차 심의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)⇒2차 심의(운용사 PT)⇒최종선정(23년 2월 중)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

## (동남권, 대구·제주·광주, 전북·강원) 지역혁신 벤처펀드 2022년 출자사업 접수 현황

□ 신청조합 수 25개, 결성예정액 5,161억 원, 출자요청액 3,329억 원  
(단위 : 억원)

| 출자분야          | 결성예정액 | 출자요청액 | 회사명(접수순)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남권 지역혁신      | 2,123 | 1,400 | 경남벤처투자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노보케어벤처먼트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동문파트너스/다날투자파트너스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라이트하우스컴바인벤처스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심본투자파트너스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아이피파트너스/에이티파트너스/유니스트기술자주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엑스벤처스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(주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오픈위티인베스트먼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트라이앵글파트너스/드림벤처스유한책임회사    |
| 대구·제주·광주 지역혁신 | 2,036 | 1,341 |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대덕벤처파트너스/엑스케이증권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디티엔인베스트먼트/아니스벤처스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뮤어우즈벤처스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배인벤처스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유진투자증권/크립톤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제이씨에이인베스트먼트/오리글벤처투자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핀치인베스트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플랜에이벤처스/보광인베스트먼트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메타리얼벤처캐피탈                |
| 전북·강원 지역혁신    | 1,002 | 588   | 소풍벤처스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아이스퀘어벤처스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<b>안다아시아벤처스</b>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월두시벤처투자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한국가치투자                   |

# 신규 투자기업 검토

안다아시아벤처스

## [나우로보틱스]

### ■ 나우로보틱스의 사업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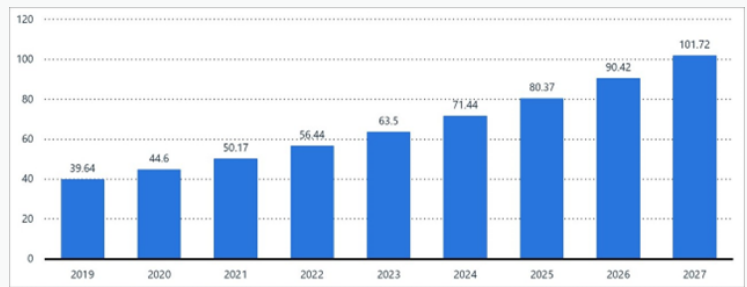


- 동사는 산업용 로봇 및 자율주행 물류로봇, 로봇시스템, 지능형 로봇 제어기, 로봇운영 S/W 플랫폼 등 제조업 환경의 스마트화를 위한 Full-Line up를 제공하는 로보틱스 전문기업
- 로봇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제품(직교/다관절/스카라)부터 자동화 로봇 System까지 기술 역량 내재화
- 누적고객사 400여개, 신규 거래처 증가율 연평균 53%, 재구매율 연평균 31%로 안정적인 영업망을 확보하여 향후 다양한 신규 제품군 생산 시 매출 확대에 매우 유리한 위치

### ■ 투자 포인트

- 제조 패러다임 변화(다품종 소량생산, 인건비 상승 등)에 따라 협동로봇, 서비스로봇과 같은 새로운 로봇시장 진출
- 안정적인 매출 성장성 및 국내 로봇회사 중에서 제어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되는 회사

### ■ “산업용·서비스 로봇” 시장분석



- 세계 로봇산업은 2020년 약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,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% 성장할 전망이며, 소프트웨어와 주변기기, SI 포함시 최대 4배 규모로 추산됨
- 각 국가별 로봇산업 진흥 정책, 5G, AI,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적 진보 등이 로봇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

### ■ 향후 전망

| 주요 재무 현황 | (단위: 백만원) | 2021년 | 2022년(E) | 2023년(E)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| 매출액       | 8,324 | 9,134    | 18,499   |
| 영업이익     | 118       | 310   | 1,929    |          |
| 당기순이익    | 367       | 206   | 1,504    |          |

- 정부는 ‘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(2019~23)’을 통해 ① 로봇산업 시장규모 15조원 확대, ② 1천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수 20개사 확대, ③ 제조로봇 보급대수 누적 70만대 목표 등, 공격적인 육성정책 추진 중
- 동사는 23년도 3월 물류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, 24년도 고속 협동 로봇 개발 중에 있음. 또한 약 13,000여개사의 잠정고객 DB를 기반으로 국내 판매 인프라 확대할 예정

# 1월 e-모빌리티 멘토링협의체 세미나

## -4th Industrial Revolution & Future Mobility-

2023년 1월 25일 e-모빌리티멘토링협의체는 올해 첫 정기 모임을 맞아 "4차산업혁명과 퓨처모빌리티" 주제로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리서치센터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.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 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출처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-아 래-

### ■ 2023 CES, Real Purpose, Real tech, Real Impact

- 2023 CES(국제전자제품박람회)에서는 매년 행사의 주제였던 비전의 제시와 그 해법을 찾는 과정의 반복을 벗어나 현실, 실용,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 접근이 핵심 화두로 떠오름
-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후 금리인상, 소비둔화, 투자급감 등의 영향으로 보이며, 기술은 소비자가 필요하는 진정성 있는 목적에 의해, 사용 가능한 기술, 이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수반되어야함을 강조
- 하지만 이번 Recession(경기침체)은 흩어져있던 혁신기술(AI, IoT, 양자컴퓨팅 등)이 서로 Bunch-up(모임)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,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룰 것으로 예상

### ◀하이투자증권 고태봉 리서치센터장▶



### ■ 모빌리티, SDV 생태계 조성...전기차 전환 가속도

- SDV(Software Defined Vehicle)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, 인포테인먼트·보안·전장 구동부터 자율주행까지 소프트웨어로 차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
- SDV로의 변화는 다양한 H/W 및 S/W 기술을 요구.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역할이 커지면 OTA(Over-The-Air)는 필수적이고, 이를 위해 차량의 중앙집중화가 필요
-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구글·아마존 등의 글로벌 IT 기업부터 퀄컴·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업체까지 SDV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
- 무엇보다 SDV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IT기업들의 가세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조성중

\* OTA: 무선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로, 차량에 적용하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새 기능 추가, 오류 개선, 보안 강화 등이 가능

### ■ 독자 OS를 개발하는 업체와 Tech 기업에 의존하는 업체로 양분

- 차량용 운영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, 독자 OS를 개발하는 업체와 Tech 기업에 의존하는 업체로 양분됨
- 차량 구동계와 Software, Hardware(통합제어기)를 연동시키는 SDV(Software Defined Vehicle)로의 변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
- 전기차, 자율주행, Connectivity(V2X), Cloud와의 연동, OTA 등이 모두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워 협업구도 조성중(ex: BMW-Intel, Mobileye+Qualcomm, Arriver)
- Tesla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, 스타트업 전기차업체와 Legacy 업체들의 빠른 추격이 전개되는 양상

\* V2X: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